

<보도자료>

## 고대영·이인호 즉각 사퇴! 방송법 개정 쟁취!

- 고대영 사장 퇴진과 이사회 해체는 국민의 명령이자 KBS 전 직원의 요구!

‘앞으로 10년 동안 니들이 바라는 세상은 오지 않아!’ 현 KBS 사장 고대영 씨가 9년 전 보도국장 재임 시절 후배들을 향해 으박지르며 내뱉은 말이다. 그렇다. 그렇게 9년의 세월이 흘렀다. 일신의 영달을 위해 공영방송 KBS를 정권에 헌납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부역을 한 당신들의 세상은 이제 끝났다.

그럼에도 공영방송 장악의 낙하산,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의 대리인들은 염치를 모른 채 자리를 끌어안고 농성에 돌입한 모양새다.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 등은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강제로 끌려 내려오는 창피와 수모를 당하기 전에 당신들이 KBS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바로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엄중히 요구한다!

혹자는 말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영방송 사장이 바뀌는 불행한 역사가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맞는 말이다! 하지만 고대영 사장, 이인호 이사장! 당신들은 아니다. 당신들이 퇴진해야 함은 정권의 요구 때문이 아니다. KBS 내부 구성원 절대다수의 요구다! 설문 조사에서 직원의 90% 가까이가 고대영 사장·이인호 이사장이 즉시 KBS를 떠나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또한 국민의 67%가 KBS 등 공영방송의 현 사장, 이사장의 퇴진에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에서 드러났듯 국민과 시청자의 절대적인 명령이기도 하다.

탄핵당한 박근혜가 임명한 고대영, 이인호의 KBS는 거의 모든 방송평가 조사에서도 참담한 추락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의 시청자 평가지수에서 KBS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2016년 10월을 기점으로 모든 평가항목들이 급격히 하락해 종편과 민영방송에 뒤지는 상황이 됐다. 또한 독선적인 정책 도입과 불통 경영은 KBS 조직을 와해하고 구성원들의 반발과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더구나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난 ‘도청 및 녹취록 유출 의혹 사건’에 고대영 사장이 깊숙이 연루돼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재수사 여부 및 결과에 의해 거취가 결정되는 수치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인호 이사장 역시 사장 선임 과정에서 청와대의 고대영 낙점 지시를 그대로 이행했다는 의혹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듯 국민의 준엄하고 역사적인 명령과 KBS 내부 구성원들의 절대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이 끝내 ‘자진 사퇴’를 거부한다면, 상상하기 힘든 치욕과 수모를 겪으며 강제 퇴진을 맞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다. 마지막 기회다. 국정농단의 협력자이자 공영방송을 망친 부역자들에게 더 이상 자비는 없다!

촛불 혁명을 이뤄낸 우리 국민은 대선 직후 이미 새 정부의 3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언론개혁’을 꼽았다. 사장, 이사회에 대한 퇴진 투쟁과 함께 언론개혁을 위한 또 하나의 지상과제가 있다. 바로 방송법 개정이다. 정권이 7:4의 수적 우위를 통해 공영방송 이사회를 조종하고 이를 통해 입맛에 맞는 사장을 임명해 방송을 장악하는 이러한 일이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이후 정권에서 또 다시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방송법 개정으로 반드시 이 잘못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혁해야만 한다. 국민은 ‘정권의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을 원한다.

정부여당에 경고한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공약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그리고 방송법 개정안 반드시 관철하라. 정권 잡았다고 또 다시 방송장악의 구태를 반복하고 KBS를 대선 승리의 전리품화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국정농단의 또 다른 조력자인 ‘자유한국당’에 경고한다. 당신들이 내려 보낸 언론장악 낙하산, 방송 부역자들에 대한 비호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고 법안 처리에 즉각 협력하라. 당신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다른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 등을 즉각 통과시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동참하는 일이다. 그래야 지난 9년의 방송장악의 죄과를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6월 12일**

**KBS노동조합,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경영협회, 기자협회, 방송그래픽협회, 방송기술인협회, 아나운서협회, 전국기자협회, 전국촬영기자협회, 촬영감독협회, 카메라감독협회, PD협회**

<첨부> 고대영, 이인호 퇴진 사유서

## 우리는 왜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가?

### 1. KBS 직원 88%, 고대영 즉각 퇴진 요구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5일 까지 실시된 모바일 설문조사에서 무려 88%에 달하는 KBS 구성원들이 현 상황에서 고대영 사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국장과 부장 등 간부들까지 포함해 약 5천명의 전 직원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번 설문에는 전 직원의 2/3에 해당하는 3,292명이 응답해 66.2%라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한 가운데 2,896명(88%)이 고 사장의 즉각 퇴진에 동의함으로써 사실상 KBS 역대 사장 가운데 최악의 불신임률을 기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BS 직원들은 소속 노동조합이나 직종, 그리고 보직자 여부를 떠나 이구동성으로 고대영 사장이 즉각 물러나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이 증명됐다.

#### 가장 큰 퇴진 사유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하락’

고대영 사장이 퇴진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조사에서 사장의 즉각 퇴진을 찬성한 응답자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는 고대영 사장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하락’시켰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응답자의 30%는 ‘조직개편, 잡포스팅 등 독선 무능경영’을 꼽았다. 이로써 고대영 사장이 방송 뿐만이 아니라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내부 구성원들조차 신뢰하지 않는 무능한 경영자임이 드러났다.

#### 직원 90%, 이인호 이사장 사퇴 혹은 이사회 해체 요구

이 뿐만 아니라 90%에 달하는 KBS의 구성원들이 ‘시청자의 공익보다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이사회 운영’(53%)과 ‘고대영 사장의 독선 경영에 대한 견제 부족’(20%) 등을 책임지고 이인호 이사장이 사퇴하거나 이사회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사장과 이사회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KBS인들의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 입증됐다.

#### 직원 41%, 사장.이사 퇴진과 함께 방송법 개정 투쟁 병행 요구

또한 구체적인 투쟁 방법, 방향을 묻는 설문에서는 ‘사장, 이사회 퇴진 투쟁과 함께 방송법 개정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았다. 현행 방송법 개정안은 법안 시행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 사장을 새로 선임해야한다고 부칙에 규

정하고 있다. 이는 현 사장과 이사의 퇴진과 함께 근본적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사장·이사회 퇴진 투쟁 혹은 방송법 개정 투쟁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27%로 나타났다.

### KBS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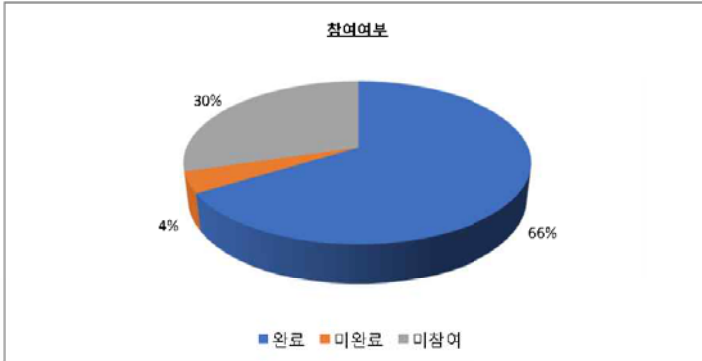
또 이번 조사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이사회, 사장 선출 구조 개편 / 편성위원회 강화 등)에 94%의 KBS구성원들이 지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대영 사장 퇴진 이후에는 '제작자율성과 공정성 강화를 통한 KBS 신뢰 확보(31%)', '독선경영 폐해 원상복구(22%)', '방송장악 규명과 부역자 청산(20%)' 등을 KBS의 최우선 개혁과제로 조합원들은 꼽았다.

고대영의 퇴진과 이사회 해체가 새로운 KBS를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이자 세대와 직종, 보직 여부를 초월해 모든 KBS 직원들의 강력한 요구임을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설문 기간: 2017년 5월 31일~6월 5일

○ 설문 주최: KBS노동조합,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및 10개 직능협회(경영협회, 기자협회, 방송그래픽협회, 방송기술인협회, 아나운서협회, 전국기자협회, 전국촬영기자협회, 촬영감독협회, 카메라감독협회, PD협회)

○ 설문 응답률: 66.2% (국내 근무자 4,975명 중 3,292명 응답)

설문 제목	KBS 설문조사																																																				
설문 방법	QuestWorld 서비스를 이용한 모바일 설문																																																				
설문 기간	2017-05-31 09:26 ~ 2017-06-06 00:00																																																				
설문 대상	4975 명																																																				
발송 메시지																																																					
시작 페이지	[사장·이사회 퇴진 여부와 KBS개혁 과제에 대한 양대노조·협회 설문조사] KBS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10개 직능협회(기자협회, 피디협회, 경영협회, 방송기술인협회, 아나운서협회, 전국기자협회, 전국촬영기자협회, 방송그래픽협회, 촬영감독협회, 카메라감독협회)는 고대영 사장과 이사회 퇴진 여부와 방송법 개정, KBS의 향후 개혁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BS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침 페이지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률	참여여부																																																				
	<table><tr><th>구분</th><th>응답율</th><th>응답자</th></tr><tr><td>완료</td><td>66%</td><td>3292</td></tr><tr><td>미완료</td><td>4%</td><td>209</td></tr><tr><td>미참여</td><td>30%</td><td>1474</td></tr></table>	구분	응답율	응답자	완료	66%	3292	미완료	4%	209	미참여	30%	1474																																								
	구분	응답율	응답자																																																		
	완료	66%	3292																																																		
미완료	4%	209																																																			
미참여	30%	1474																																																			
																																																					
작성 기준일	2017-06-06_08-31																																																				
설문 결과	<div>1.현 상황에서 고대영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div> <table><tr><th>번호</th><th>답변내용</th><th>응답율</th><th>응답자</th></tr><tr><td>1</td><td>예</td><td>88%</td><td>2896</td></tr><tr><td>2</td><td>아니오</td><td>12%</td><td>396</td></tr></table> <div>1-1.다음 중 고대영 사장이 지금 사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div> <table><tr><th>번호</th><th>답변내용</th><th>응답율</th><th>응답자</th></tr><tr><td>1</td><td>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하락</td><td>54%</td><td>1765</td></tr><tr><td>2</td><td>조직개편, 점포스팅, 수신료 포기 등 독선·무능 경영</td><td>30%</td><td>999</td></tr><tr><td>3</td><td>측근·정실 인사, '편가르기' 인사</td><td>2%</td><td>75</td></tr><tr><td>4</td><td>전 정권에서 임명받아 현 정권과 갈등과 불화 불가피</td><td>2%</td><td>58</td></tr></table> <div>1-2.다음 중 고대영 사장이 지금 사퇴하지 않아도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div> <table><tr><th>번호</th><th>답변내용</th><th>응답율</th><th>응답자</th></tr><tr><td>1</td><td>사퇴할 이유가 전혀 없을 만큼 잘 해왔기 때문</td><td>1%</td><td>32</td></tr><tr><td>2</td><td>부족한 부분은 다소 있지만 사퇴할 만큼 중대한 과실은 없기 때문</td><td>4%</td><td>127</td></tr><tr><td>3</td><td>사퇴에는 공감하나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사장 임기 보장 필요</td><td>5%</td><td>154</td></tr><tr><td>4</td><td>자진 사퇴가 아닌 방송법 개정 등 지배구조 개편으로 사장 교체</td><td>3%</td><td>92</td></tr></table>	번호	답변내용	응답율	응답자	1	예	88%	2896	2	아니오	12%	396	번호	답변내용	응답율	응답자	1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하락	54%	1765	2	조직개편, 점포스팅, 수신료 포기 등 독선·무능 경영	30%	999	3	측근·정실 인사, '편가르기' 인사	2%	75	4	전 정권에서 임명받아 현 정권과 갈등과 불화 불가피	2%	58	번호	답변내용	응답율	응답자	1	사퇴할 이유가 전혀 없을 만큼 잘 해왔기 때문	1%	32	2	부족한 부분은 다소 있지만 사퇴할 만큼 중대한 과실은 없기 때문	4%	127	3	사퇴에는 공감하나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사장 임기 보장 필요	5%	154	4	자진 사퇴가 아닌 방송법 개정 등 지배구조 개편으로 사장 교체	3%	92
번호	답변내용	응답율	응답자																																																		
1	예	88%	2896																																																		
2	아니오	12%	396																																																		
번호	답변내용	응답율	응답자																																																		
1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하락	54%	1765																																																		
2	조직개편, 점포스팅, 수신료 포기 등 독선·무능 경영	30%	999																																																		
3	측근·정실 인사, '편가르기' 인사	2%	75																																																		
4	전 정권에서 임명받아 현 정권과 갈등과 불화 불가피	2%	58																																																		
번호	답변내용	응답율	응답자																																																		
1	사퇴할 이유가 전혀 없을 만큼 잘 해왔기 때문	1%	32																																																		
2	부족한 부분은 다소 있지만 사퇴할 만큼 중대한 과실은 없기 때문	4%	127																																																		
3	사퇴에는 공감하나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사장 임기 보장 필요	5%	154																																																		
4	자진 사퇴가 아닌 방송법 개정 등 지배구조 개편으로 사장 교체	3%	92																																																		

2.현 상황에서 이인호 이사장이 사퇴하거나 혹은 이사회가 해체해야한다고 생각합니까?

번호	답변내용	응답율	응답자
1	네	90%	2967
2	아니오	10%	325

2-1.다음 중 이인호 이사장이 사퇴, 혹은 이사회가 해체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번호	답변내용	응답율	응답자
1	고대영 사장의 독선 경영에 대한 견제 부족	20%	652
2	시청자의 공익보다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이사회 운영	53%	1758
3	KBS 이사로서의 대표성·자격 부족	13%	427
4	전 정권에서 임명받아 현 정권과 갈등과 불화 불가피	4%	133

2-2.다음 중 이인호 이사장이 사퇴, 혹은 이사회가 해체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번호	답변내용	응답율	응답자
1	사퇴, 해체할 이유가 전혀 없을 만큼 잘 해왔기 때문	1%	29
2	부족한 부분은 다소 있지만 사퇴, 해체할 만큼 중대한 과실은 없기 때문	3%	89
3	사퇴, 해체에는 공감하나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KBS 이사 임기 보장 필요	4%	116
4	자진 사퇴가 아닌 방송법 개정 등 지배구조 개편으로 이사회 교체	3%	96

3.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이사회·사장 선출 구조 개편, 2/3 특별다수제, 편성위원회 강화 등)의 통과에 찬성하십니까?

번호	답변내용	응답율	응답자
1	예	94%	3091
2	아니오	6%	201

4.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회의 퇴진과 해체를 위한 방법으로 사장과 이사장의 즉각 사퇴 요구 투쟁과 방송법 개정을 통한 사장, 이사회 교체 투쟁 등이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이 중 어떤 투쟁에 더 공감하십니까?

번호	답변내용	응답율	응답자
1	즉각적인 사장과 이사장의 사퇴 요구 투쟁	27%	886
2	방송법 개정을 통한 사장과 이사장의 교체 투쟁(현 방송법 개정안은 개정안 시행시 이사·사장을 새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27%	881
3	1번과 2번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하는 투쟁	41%	1337
4	사장과 이사장 퇴진 투쟁에 반대	6%	188

5.고대영 사장 퇴진 이후, 가장 시급한 KBS의 개혁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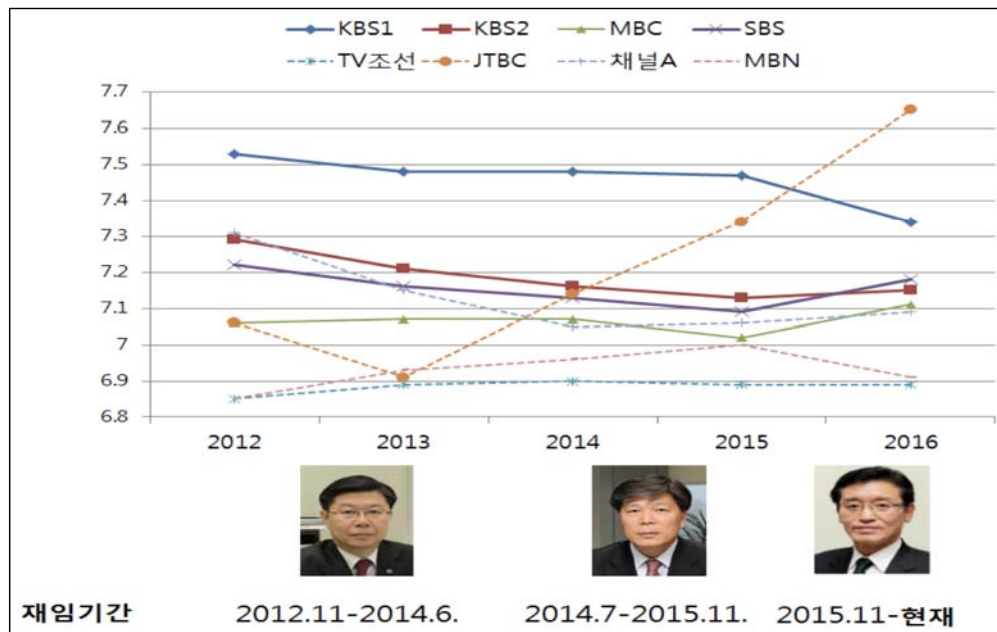
번호	답변내용	응답율	응답자
1	방송장악 규명과 부역자 청산	20%	1326
2	제작자율성과 공정성 강화로 KBS 신뢰 확보	31%	2045
3	독선경영(갑프스팅, 조직개편, 근무형태 변경)으로 훼손된 조직 원상회복	22%	1478
4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인재 양성 등으로 경쟁력 상승	9%	590
5	수신료 현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KBS 미래 확보	12%	771
6	미디어·기술 변화에 대응위한 과감한 투자와 구조 개편	6%	374

2개 복수 선택 문항입니다.

## 2. KBS 공정성·신뢰도, 밑바닥까지 추락

고대영·이인호 체제에서 KBS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KBS 존재 이유라 할 수 있는 방송 공정성과 공익성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국민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마다 채널별 만족도와 품질을 평가하는 프로그램 평가지수인 KI 지수(KCC Index, 시청자평가지수)에서 KBS의 추락은 충격적이다. 고대영 사장 취임 이후인 2016년부터 KBS1TV이 시청자 평가지수는 급격히 하락해 JTBC에 현격한 차이로 1위 자리를 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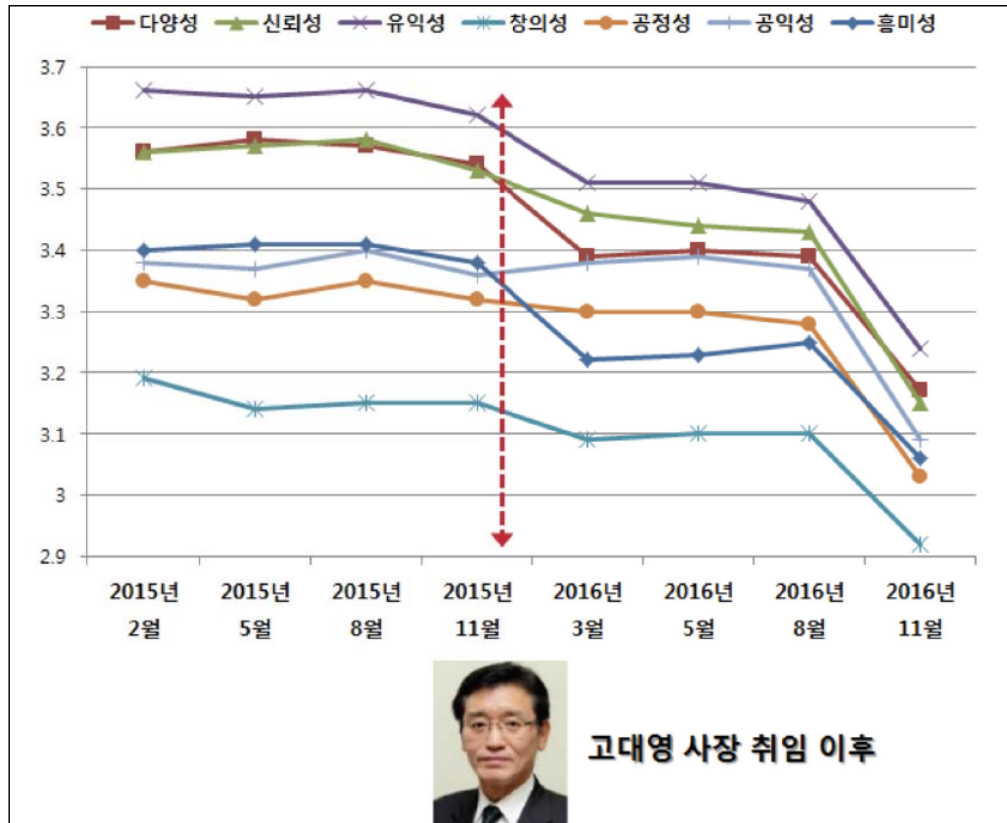
### ▶ 역대 KBS 사장 재임기간별 KI지수 추이

특히 광고를 하지 않고 수신료로 운영하는 KBS 1TV는 공공채널로서 채널 성과의 핵심적인 척도라 할 신뢰성, 공정성, 공익성이 모두 JTBC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성은 SBS에도 뒤쳐졌다.

지수	지상파				종편			
	KBS1	KBS2	MBC	SBS	TV조선	JTBC	채널A	MBN
신뢰성	3.38	3.28	3.19	3.35	3.13	3.76	3.22	3.23
공정성	3.23	3.17	3.07	3.24	2.99	3.66	3.11	3.14
공익성	3.31	3.16	3.05	3.18	3.01	3.59	3.09	3.11
흥미성	3.19	3.5	3.55	3.59	3.21	3.83	3.31	3.29
다양성	3.34	3.36	3.33	3.45	3.19	3.79	3.28	3.29
유익성	3.44	3.37	3.3	3.41	3.19	3.78	3.28	3.29
창의성	3.06	3.15	3.18	3.3	3.09	3.78	3.2	3.18

### ▶ 2016년 채널별, 항목별 시청자 평가지수

이 모든 것이 고대영 사장이 취임한 이후 벌어진 상황이다. 특히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모든 항목에서 급격한 추락을 보였다. '최순실이 대통령 측근 맞냐?'며 은폐 보도와 왜곡 방송에 급급한 결과가 낳은 비극이다.



#### ▶ 고대영 사장 취임 이후 시청자평가지수 추이

##### 언론학회원 조사, KBS 신뢰성 공정성 8위권 바깥 하락

고대영, 이인호의 KBS에 대해 학계가 내리는 평가는 더욱 냉엄하다. 미래미디어연구소는 한국언론학회 학회원인 언론학과 교수 및 연구자 5백여 명을 대상으로 15개 매체를 평가하는 설문 조사를 해마다 실시한다. 기준은 신뢰성, 공정성, 유용성 등으로 각 분야별 세부 항목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를 취합한다.

KBS의 결과는 참혹한 수준이다. 2016년 KBS는 신뢰받는 미디어 1위부터 8위 사이에조차 들지 못했다. 1위는 JTBC, 2위는 한겨레였다. 공정한 미디어 부문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1위 JTBC, 2위 경향신문이 차지한 공정성 부문에서 KBS는 8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1년 전인 2015년만 해도 KBS는 같은 조사에서 신뢰성 5위, 공정성 5위를 유지했지만 고대영 사장 취임 1년 만에 순위 내에 들지도 못하는 신세로 추락한 것이다.

##### KBS뉴스9, <시사인> 조사 결과 JTBC뉴스룸에 밀려

이 뿐만이 아니다. 시사주간지 <시사인>은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해마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를 설문 조사한다. KBS의 간판 뉴스인 '뉴스9'은 2016년 '가장 신뢰하는 프로그램'을 묻는 조사에서 응답률 13.4%에 그쳐, 17.5%가 응답한 JTBC '뉴스룸'에 1위 자리를 내줬다.

고대영 이인호 체제 KBS에서 이 같은 방송부문 추락은 예견된 일이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극심한 북풍몰이식 뉴스 보도와 정권에 불리한 이슈 등을 외면하거나 곁핥기식으로 전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

특히 고대영 사장의 친위부대로 불리는 보도부문의 뉴스 책임자들은 KBS편성규약이 보장한 기자협회장의 편집회의 참석, 의견 제시 권한을 수시로 탄압하고 무시함으로써 취재·제작 실무자들과의 소통을 거부했다. 이도 모자라 보도책임자들은 공정방송 감시 활동을 트집삼아 노동조합 간부를 부당 징계했다. 2015년 민중총궐기 대회 주최측을 부당하게 매도하는 뉴스9 리포트에 대해 해당 부서장 등에게 경위를 묻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게 그 이유다.

### **정권 편향적 불공정방송, 내부 문제제기는 강압적 묵살**

박근혜 정권의 사드 배치를 놓고는 고대영 사장이 임원회의에서 직접 '안보에 있어선 다른 목소리가 있어선 안된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보도와 편성에 개입했다. 이른바 '사드가 국익'이라는 맹목적 보도 태도는 급기야 성주 사드반대 집회에서의 '외부세력 개입'이라는 허구적 뉴스 프레임 강요로 이어졌다. 보도책임자들은 소위 외부세력이 사드 반대 집회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할 것을 집요하게 지시하였고 이에 반발한 현장 취재기자들을 징계에 회부하기까지 하였다.

또 KBS가 30억 원을 투자한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대해서도 홍보성 리포트 제작을 강압적으로 지시하였고, 이에 취재기자들이 반발하자 편성규약에 따른 논의 절차조차 무시한 채 멋대로 징계의 칼날을 휘둘렀다. 결국 이 징계는 법원에서 부당한 징계로 판정됐다.(1심)

게다가 '이정현 녹취록 사건'에 침묵하는 보도국을 비판하는 글을 기자협회보에 기고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자를 연고가 없는 제주로 보복 발령을 내는 만행도 저질렀다. 또한 실무자들을 대표해 불공정 보도를 감시해 온 기자협회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보도본부 간부들이 주도, 사조직을 결성해 공격하는 일도 꾸몄다. 하나같이 정상적인 언론사라면 상상조차 못할 일들이다. 모두 고대영-이인호 체제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 3. 독선적인 정책 강행과 불통 경영

#### -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성과평가제’ 고집

고대영 사장은 KBS 조직과 인사관리를 대폭 바꿨다. 크게 ①조직개편 시행(2016년 상반기) ②잡포스팅 시행(2017년 상반기) ③관리회계 도입과 성과평가 및 임금 연계(2017년 하반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고대영 사장은 이 같은 일련의 변화를 ‘생존을 위한 혁신’이라고 자평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편협하고 철지난 경영 지식에 기댄 망나니 칼부림과 같은 ‘폭주 경영’이었다. 방송시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쟁 만능주의를 KBS에 이식하려 했다. 특히 KBS 인사 정책을 ‘새벽 인력시장’처럼 바꿔버린 이른바 ‘잡포스팅’은 KBS 구성원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여 조직을 망쳐놓았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성과평가제’, ‘성과임금제’를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KBS에 무비판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정책 도입 과정에서 구성원의 이해를 구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생략했다. 군사작전 하듯 시한을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폭주했다.

#### ① 조직개편 시행

##### □ 요약

- 신규 조직 : 미래사업본부·디지털서비스국·편성마케팅국 등 신설
- 예산→투자 : <예산 배정> 대신 <투자 결정> 개념 도입. <제작 업무>와 <제작 투자결정 업무> 분리.

##### ☞ 문제점

○ Input/Output 평가 일변도 : ‘투입한 비용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가’의 관점 위주로 프로그램 제작 여부를 결정하고 프로그램 성과를 평가함. 상업방송 경영논리 무비판적 KBS에 이식하였다.

○ 공영성 포기 : <비용 대비 편익> 개념을 과도하게 적용해 ‘시청률 지상주의’를 조직 전반에 확산시켰다. 국민적 신뢰를 토대로 공영방송의 물질적 기반인 수신료를 현실화해 이를 제작 환경에 반영해야 할 공영방송 경영진으로서의 의무를 사실상 포기하였다.

○ 창의성 말살 : 제작진을 단기적 성과로 내몰아 시청률이 안정적으로 예상되는 관행적인 아이템에 매달리도록 하였다. 공익성과 창의성으로 무장한 모험적 프로그램에 대한 시도는 사실상 원천 봉쇄된 셈이다.

○ 의견 수렴 생략 : 조직 변화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은 대상자인 직원의 절대 다수가 변화의 이유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직원 등 이해 관계자들과의 합의는커녕 최소한의 협의도 생략한 채 밀실에서 졸속으로 구상하고 군사작전하듯이 강행하였다. 이런 막무가내식 경영을 견제하고 막아야 할 이인호의 이사회는 고대

영 사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 이 같은 문제는 뒤이어 도입되는 ‘잡포스팅’과 ‘관리회계 도입’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됐다.

## ② 잡포스팅(자율형 직무선택제) 시행

### □ 요약

- 매칭 시스템 : 결원 부서에 직원이 직무지원을 한 뒤 부서장의 선택을 받아 이른바 ‘매칭’이 이뤄진 경우에만 발령하는 방식을 사내 모든 인사에 우선적으로 적용.
- 인력풀 도입 : 매칭이 안 된 직원들을 한 데 모아 일정한 재교육을 받도록 한 뒤 회사가 직권으로 발령.

### ☞ 문제점

- 직무 정의 불명확 : 직무 선택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직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돼야 한다. 하지만 일체의 의견 수렴 없이 단기간에 진행됨으로써 세밀한 직무설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허울뿐인 ‘직무선택제’를 도입함으로써 단지 인사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 부서장 권한 극대화 : 직원의 직무지원을 수용할지 여부를 부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인기 부서의 경우, 직원이 해당 부서장과 사전에 비공식적 접촉을 해 미리 내락을 받는 등 인사 로비가 벌어지고 사적인 관계가 작용하는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불공정 인사의 여지가 커졌다.
- 이른바 ‘줄세우기’ 폐해 강화 : 부서장의 선택을 못 받은 ‘非매칭 직원’은 인력풀로 강제 유입되는 구조다. 인력풀은 이른바 ‘직무 재교육, 또는 강제 직무 전환 대상’으로 조직에서의 ‘퇴출’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수모를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같은 낙인과 수모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불안감을 극대화시켜 부서장 등 간부들이 인사권을 무기로 직원들을 맘대로 부리고 이른바 ‘줄세우기’하는 폐해를 키우고 있다.
- 일방적 퇴출 구조 : 회사가 자의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이른바 ‘저성과자’로 간주해 인력풀에 지정할 수 있다. 인력풀로 지정된 직원에 대해서는 지방 발령이라든가 익숙지 않은 업무로의 배정 등을 통해 사실상 ‘퇴직’을 강제할 수 있다. 실제 최근에 시행된 인사에서 납득할 수 없는 강제 지방 발령으로 회사-직원 간 소송이 벌어지는 등 노사 갈등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번졌다. 근본적으로 잡포스팅과 인력풀 제도는 관리회계 및 성과평가제와 연계해 박근혜 정부가 고집해온 공공기관의 상시적인 성과 퇴출 구조를 만들려는 의도에서 강행되고 있다.

## ③ 관리회계 및 성과평가제 도입

### □ 요약

- 비용 산출 강화 : KBS 모든 부문과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비용과 리소스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하는 회계 기능을 강화함.
- 성과평가제와 연동 : 투입된 비용과 리소스에 비해 높은 성과를 거둔 부서와

직원에게 초과 보상을 하고 성과가 부진한 직원에게는 각종 불이익을 주는 성과평가제 도입.

☞ 문제점

○ 상업성 강화 : 앞선 조직개편과 쌍을 이뤄, 비용 대비 편익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非인기 프로그램은 제작 현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KBS가 공영성을 포기하고 상업성에 치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 제작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도록 변화할 것이다.

○ 노동계약 연계 : 관리회계 시스템이 완비되면, Input/Output 관점에서 부서 및 개별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제를 시행해 '경쟁 만능주의'의 보상 제도를 만들고 잡포스팅을 앞세운 '비자발적 퇴출' 제도를 상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고대영 사장 스스로 올해 신년사에서 관리회계를 도입해 성과평가제도 및 보상 제도와 연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끝>